

# 길 이름들

이광근\*

2016.12.11

길 이름에서 갖출 수 있을까. 역사의 깊이를 누리는 내실있고 존경스러운 도시의 디테일. 구체적으로, 길돌지말고 우리 주변의 인물을 길 이름으로 기리고 호흡하는 도시.

파리가 그렇다. 그들은 역사에서 기리고 싶은 인물들을 길 이름으로 사용한다. 데카르트부터 최근의 미테랑까지 구석구석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길 이름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뿐이 아니다. 우린 관심없겠지만 그들에겐 의미있었던 인물들로 넘친다. 3-4세기 인물부터 20세기 인물까지, 온갖 분야의 학자, 예술가, 작가, 정치가, 기술자, 또는 왕정 시절의 인물등. 프랑스 인물뿐이 아니다. 간디, 뉴턴, 갈릴레오, 라이프니츠, 아인슈타인 등 외국인물도 망라하고 있다.



서울은? 구체적이지도 열심이지도 않다.

정약용로도 장영실로도 없고, 류성룡로도 이이로도 없다. 광개토태왕로도 강감찬로도 없다. 안중근로도, 유관순로도, 김원봉로도, 신채호로도, 윤봉길로도 없다. 영정조 시대 비운의 천재 수학자였다는 김영로도 없고, 이휘소로도 없다. 함석헌로도, 전태일로도 없다.

있어도 그 이름이 확실히 다가오는 게 아니다. 직접적이지 않은 호를 쓰기 때문이다. 백범로는 왜 김구로이지 않을까. 충무로는 왜 이순신로가 아닌가. 세종로는 왜 세종대왕로 하지 않을까. 퇴계로는 이황로가 아니다. “충무로”나 “퇴계로”를 전하면서 이순신 장군이나 이황선생이 내게 다가온 적이 없다. 소리roman 길돌 뿐이다.

짐작은 간다. 중국말로 의미없는 소리roman 소통하던 - 그래서 서서히 망해갔던 - 관심이 길 이름에 아직 덕지덕지한 이유? 아마도 우리가 실제에 집중하는 차근차근한 과정을 밝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글로만 소통해도 된다는 허위의식이 500년이상 한 몫했고, 지난 100년 서둘수 밖에 없었던 주입식 교육이 증상이면서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의미전달에 집중하지 않았던 언어생활의 습관이 길 이름에도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의 수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길 이름으로 새길 자신감이 우리에게겐 있지않은가 이제. 민주의 자신감에 어울리는 문화 도시로서 그런 길 이름이 넘쳐나는 서울을 어서 만들라. 우리도 그런 도시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서울대 교수. 홈페이지 kwangkeunyi.snu.ac.kr